

금강산 금천리 협동농장 양돈장 공사현장

김준영 통일농수산물사업단 양돈 팀장

출장기간 : 2006년 6월 27일 ~ 6월 27일 (당일)

방문지 : 개성사업소

방문자 : 총 6명

| NO | 소속 | 직책 | 성명 | 비고 |
|----|-----------|-------|-----|--------|
| 1 | 통일농수산물사업단 | 양돈 팀장 | 김준영 | |
| 2 | 통일농수산물사업단 | 시공 담당 | 박종대 | 애니팜 대표 |
| 3 | 현대아산 | 고문 | 손장래 | |
| 4 | 현대아산 | 과장 | 권 덕 | 대외사업본부 |
| 5 | 현대아산 | 대리 | 박봉수 | 대외사업본부 |
| 6 | 현대아산 | 기사 | 권영채 | 대외사업본부 |



■ 방문목적

- 1) 양돈장 예정부지 답사 및 공사 관련 협의
- 2) 양돈장 예정지 진입로 답사

■ 방문일정

| | | |
|------------|---------------|---------------|
| 2006.06.17 | 10:00 | 개성 CIQ 도착 |
| | 10:10 ~ 11:10 | 양돈장 예정부지 답사 |
| | 11:20 ~ 12:10 | 면담 (현대아산 회의실) |
| | 13:00 ~ 14:30 | 양돈장 진입로 답사 |
| | 15:50 | 도라산 CIQ 도착 |

■ 주요내용

1) 양돈장 예정부지 답사 (10:10~11:10)

① 참석인원 : 남측 총 5명

북측 총 6명(지도총국 오광욱 참사/
조성 참사, 봉동 협동농장 인원 4명)

② 답사 내용

- 양돈장 기본 입지 조건(온도, 소음, 습도 등)에 부합하는 부지(북측에서 최초 제시한 부지)를 대상으로 답사 실시.
- 양돈장 부지 확보를 위한 절토 범위 및 북토 예정지역 가측량,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단 내부협의 통해 공사 시기 및 규모 확정 예정.
- 동 부지로 확정 시 전력 인입 등의 문제는 대체 가능한 방법(발전기 사용 등)을 모색하기로 함.
- 양돈장 예정지 반대쪽 150m, 철도 인접한 2,000만평 이외 지역에 태림산업이 북측(개선총회사)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석재공장이 위치할 예정(현재 부지조성 작업 진행 중),



소음 발생으로 인해 가축 생육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확인 중임.

2) 면담 (11:20~12:10, 현대아산 회의실)

① 참석인원 : 남측 총 5명

북측 총 2명 (지도총국 오광욱 참사/조성참사)

② 면담 내용

- 봉동 양돈장 예정 부지의 토목공사를 지도총국이 진행하기로 함(지도총국의 오광욱 참사는 사업단이 토목공사를 진행 하도록 제기하였으나 사업단 측에서 금천리 및 삼일포 양돈장의 선례를 들어 부당함을 주장).
- 사업단 내부 협의를 거쳐 토목공사의 범위를 확정 및 통보, 지도총국측은 가능한 빠른 시일(통보 후 15일)내로 부지 정지 작업을 마치고, 장마가 끝나는 대로 건축공사를 시작하기로 함.
- 입돈 예정 시기(06년 9월말) 전, 사료 및 돼지의 검역 관련하여 북측의 검역 담당자와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북측은 관련 내용을 문건 작성하여 협의 3주 전에 통지해 달라고 함).
- 사업단측은 양돈사 건축 시 고정 인원(5명 정도)을 배치해 줄 것과 가축 소독기재 사용 및 질병 진단 협의 가능한 양돈 기술자 섭외를 제기, 지도총국측은 전문 기술자 섭외는 어려우며, 대신 양돈장 관리 예정자가 사전 준비 가능토록 양돈 기술 관련 서적을 차후 방문 시 보내 줄 것을 요청함.
- 기타, 사업단 측은 10만두 규모의 양돈장과 종돈장, 유기질 퇴비 공장, 도축장, 가공공장을 갖춘 축산단지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대한 토지 할애





가능성 및 투자 방식의 접근이 가능한지를 타진하였으나, 지도 총국측은 소기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사업을 확장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함.

3) 진입로 답사 (13:00~14:30)

① 참석인원 : 남측 총 6명(권영채 기사 합류)

북측 총 6명(지도총국 오광욱 참사/조선
참사봉동 협동농장 인원 4명)

② 답사 내용 (유침 도면참조)

- 개성공업지구 1단계 구역 경계로부터 개성방향으로 1.9km지점 까지는 도로 상태 양호.
- 용수시설 자재 하차지를 지나면서 비포장길 시작, 약 400m 구간에 철도 교차로 등 부분적으로 상·하 둔덕이 있어 보수 필요함.
- 양돈장 예정지 부근의 급경사 구간은 노반·노면 상태가 불안하나 25톤 화물차(공차) 기준, 통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단, 언덕을 지나 양돈장 예정지까지의 진입 차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작업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진입 구간을 선정, 북측에서 차로 확보 공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함. 

